

# 전남, 대형 해양·수산 프로젝트 선점... 해양수산 선도도시 도약

국립해양박물관·해양생태공원·여수 해양관광도시 잇단 선정  
스마트수산 혁신지구 도전 속 해양·관광·생태 국책사업 성과

전남도가 올해 굵직한 해양·수산 프로젝트를 잇따라 선점하면서, 명실상부 해양수산업 선도 도시로의 면모를 갖추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도는 특히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해양수산업부 ‘스마트수산업 혁신선도지구’ (이하 수산업 혁신지구) 선정으로 방점을 찍는다는 복안이다.

2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달 마지막 주차에 스마트수산업 혁신선도지구 선정결과를 확정한다. 수산업 혁신지구는 육상과 해상을 더해 33만㎡(10만평) 부지에 5년간 국비 1675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효율·친환경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정부의 ‘조혁신 15대 과제’인 스마트수산업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해수부는 대상지 공모에 들어갔다.

이달 초 공모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전남(고흥)

과 포항이 도전장을 냈다. 전남도는 고흥 도덕면 일원을 배후부지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포함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수산업 혁신지구는 ▲한국형 스마트 양식 혁신 생태계 조성 ▲빅데이터·AI 신기술 확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어업인 참여, 청년 일자리 창출 ▲플랫폼 확산 및 글로벌화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수산업 혁신지구가 아쿠아팜 기업을 양성, 수익 창출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은 물론,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관광과 수산, 생태 등 다양한 해양사업에서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국립 해양박물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여수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등이다.

국립해양수산업박물관 건립 사업은 완도군 일원에 국비 1138억원을 투입,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규모로 조성된다. 수산자원과 해양문화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담아낸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여자만과 신안·무안은 이달 초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국내 첫 지정 사례인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양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공원으로 직접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여자만은 해양생태공원 지정과 함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사업에 올랐으며, 여자만 해양보호구역을 체계적 관리하고 해양 생태·문화 거점을 조성해 해양생태계 보호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

또 여수시는 이달 초 1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 선정으로 여수는 글로벌 해양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평가된다.



국립해양수산업박물관 조감도.

전남도 관계자는 “올 한해 전남은 수산, 관광, 생태 등 다양한 해양 사업이 잇따라 호재를 맞으면서 해양수산도시의 위상을 드높일 전기를 맞았다”며

“스마트수산업 혁신선도도시 지정으로 한 해에 5대 과업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생활 속 내 아이디어, 전남도 정책 됐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성과 보고회

전남도가 “지난 22일 목포 폰타나비치호텔에서 ‘2025년 전남도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전남도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정 및 시·군정 전반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사회 나눔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보고회는 전남도 생활공감정책 참여단과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해 유공자 표창과 우수 시군 시상, 우수 정책제안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여수시는 침수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생활밀착형 제안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 제감도가 높은 정책 아이디어의 성과를 공유했다.

박종선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대표는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제안들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참여단의 제안은 도민의 시선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중요한 창구”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개발공사 건축물 누수 방지 세미나 개최

전남개발공사는 23일 “‘건축물 누수 방지 세미나’를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세미나는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무 중심 기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사 현장에서 빈번하게 지적되는 방수 품질 저하와 하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집중호우 증가와 건축물의 노후화, 복잡한 시공 환경 등으로 방수 공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최신 방수 공법 및 자재 동향 ▲하자 사례 분석 및 예방 전략 ▲현장 품질관리 강화 방안 등을 통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공유했다.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장, 최성민 박사 등 방수분야 전문가가 참여, 심층 교육을 통해 반복되는 하자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방수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공정이 만큼, 이번 세미나가 실무 역량을 높이고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

로도 공공건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전문교육과 품질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여수세계섬박람회서 ‘떠다니는 배’ 만날까

조직위, 위그선 등 미래항공 모빌리티 전시 논의 중

섬박람회 기간 위그선(사진)을 볼 수 있을까.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2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2025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위그선 운영 계획 등 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안건 등을 상정, 논의했다.

섬박람회 조직위측은 애초 내년 열리는 박람회 기간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섬과 섬을 오가는 킬러콘텐츠로 위그선 등 미래항공 모빌리티(AAM)를 활용하려고 했으나 운용사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투명한 상태다.

섬박람회 조직위측은 대신, 미래항공모빌리티 실물모형기체를 전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위원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이같은 점을 감안, ‘섬박람회 위그선 운영 기본계획안’을 상정, 논의하는 한편, 2026년 본예산 등을 심의·의결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박람회 준비가 실행 단계로 본격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섬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최초의 섬박람회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여수세계박람회장과 금오도, 개도 등 섬 지역 일원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예능영재 키움 수료식’ 개최

전남도는 지난 22일 도청 왕인실에서 예능영재 학생과 학부모, 교육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예능영재 키움 수료식’을 개최했다.

예능영재 키움은 전남지역 예술 분야에 잠재력이 있는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학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한다는 목표로 선발, 국악, 서양음악, 미술, 무용 등 분야별 체계적인 전문교습과 현장학습, 맞춤형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수료식에 참석한 학생은 “예능영재 키움은 가

능성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예술가의 꿈을 계속 키워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능영재 키움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의 예술 인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속 발굴·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전남도 예능영재 키움’으로 총 587명을 발굴, 육성해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창고 매 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